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윤리)

성명

수험번호

3

1

1. 밑줄 친 ㉠보다 ㉡이 지지할 주장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오로지 자신만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많은 돈을 가지려고 전력투구하는 사람은 ㉠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.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세상을 밝게 해 주는 좋은 일을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㉡돈의 달인이 될 수 있다. 돈의 달인처럼 돈을 쓰면 돈은 물처럼 순환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유대가 더욱 깊어진다. 돈의 달인은 가진 것이 많은 적은 누구나 될 수 있다.

< 보 기 >

- ㄱ. 삶의 궁극적 목표는 물질적 풍요의 실현이다.
- ㄴ.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만 인간답게 될 수 있다.
- ㄷ. 물질적 재화는 공동선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- ㄹ. 많은 재산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ㄷ
- ④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ㄷ, ㄹ

2.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㉠~㉤ 중 옳지 않은 것은?

<수행 평가>

◆ 문제 : 갑, 을 사상가들의 인성론과 통치 방법을 비교하시오.

갑 : 신하는 사력(死力)을 다하겠다는 것으로써 임금과 거래를 하고, 임금은 벼슬과 녹봉을 가지고 신하와 거래를 한다. 모두 자신의 이익을 계산할 뿐이다.

을 : 성(性)이 선(善)하면 성왕(聖王)과 예의(禮義)가 필요 없다. 성이 악(惡)하기에 성왕과 예의가 귀한 것이다. 예의와 법도는 성인들의 인위(人爲)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.

◆ 학생 답안

갑, 을 사상가들의 인성론을 살펴보면 ㉠ 갑은 이기적 욕망이라는 감정이 본성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하며, ㉡ 을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. 그리고 ㉢ 갑, 을은 모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외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. 한편 통치 방법에 있어서 ㉣ 갑은 군주의 강력한 힘을 통해 백성을 통제할 것을 강조하고, ㉤ 을은 성인(聖人)이 제정한 규범을 통해 백성을 교화할 것을 강조한다.

- ① 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㉣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㉤

3. 가상 인터뷰를 하는 사상가는 밑줄 친 ‘이 책’의 저자이다. ㉠에 들어갈 대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이 책은 19세기 당시 독일 철학계의 흐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이 책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삶에 대한 맹목적 의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인간의 현실적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.

- ① 우주 만물을 이성적으로 관조해야 합니다.
- ② 신 앞에 나아가 주체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.
- ③ 선의지를 통해 맹목적 의지를 극복해야 합니다.
- ④ 의지를 부정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.
- ⑤ 개인적인 체험과 직관보다 합리성을 중시해야 합니다.

4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-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은 모두 한 마음[一心]으로 말미암은 것이다. 마음을 떠나 부처가 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.
-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이 성(性)의 정(定)이며,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성의 혜(慧)이다. 이를 깨달아 정과 혜를 함께 닦는 것이 단박에 깨치는 문(門)에 들어간 이의 수행이다.

- ① 돈오(頓悟)를 위해 경전을 숙지해야만 한다.
- ② 돈오(頓悟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.
- ③ 한 번의 깨달음만으로도 성불(成佛)할 수 있다.
- ④ 먼저 지혜를 쌓아야 선정(禪定)에 이를 수 있다.
- ⑤ 돈오(頓悟)의 순간 번뇌와 나쁜 습성이 모두 사라진다.

5. 다음은 어느 선언문의 일부이다. 이 선언문에 반영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? [3점]

- 사회주의는 경제적·사회적 보장과 변형을 기초로 해서 개인적 자유의 확대를 추구한다.
- 생산은 인간의 필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. 이와 같은 계획은 개인의 개성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사회주의는 국내 및 국제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계획을 동시에 지지한다.

- 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.
- ② 중앙 권력 기관에서 모든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.
- ③ 자유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.
- ④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.
- ⑤ 생산 성과의 분배 시 필요라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.

6. 갑, 을, 병은 서양 사상가들이다. 이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갑: 철학자가 군주가 되거나 현재의 군주가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인류의 불행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.  
 을: 자유란 연대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평등 속에서만 완전히 실현된다.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이 매장되는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다.  
 병: 공공의 권력이 없는 상태는 사실상 전쟁 상태이다. 공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.

- ① 갑은 민중에 의한 통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.  
 ② 을은 인간의 사회성을 신뢰하고 정치 기구를 부정하였다.  
 ③ 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국가의 역할로 보았다.  
 ④ 갑과 달리 병은 구성원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.  
 ⑤ 을과 병은 최소한의 정부를 최선의 정부로 보았다.

7. 다음 사상이 강조하는 가르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○ 모든 것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,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며,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,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.  
 ○ ‘존재한다’고 말하는 것은 있음[有]에 대한 집착이고, ‘존재하지 않는다’고 말하는 것은 없음[無]에 대한 집착이다. 지혜로운 사람은 존재에도 비존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.

- ① 진리[眞]와 현실[俗]이 별개가 아님을 알아라.  
 ② 세속에서 벗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.  
 ③ 자비를 실천하려면 먼저 확고부동한 자아를 찾아라.  
 ④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만 해탈할 수 있음을 자각하라.  
 ⑤ 중도(中道)를 실천하여 불변하는 자신의 고유성을 확보하라.

8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○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.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하며, 덕에는 지적인 덕과 도덕적 덕이 있다.  
 ○ 돌의 본성은 아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 위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려고 애써도 소용없다. 시각이나 청각은 자주 보고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있었던 감각이다. 그러나 도덕적 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.

- ① 덕을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.  
 ② 지적인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가운데인 중용이다.  
 ③ 지적인 덕을 모두 갖추어야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.  
 ④ 도덕적인 덕은 지적인 덕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다.  
 ⑤ 도덕적 덕은 좋은 행동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.

9. 그림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. 갑은 긍정, 을은 부정으로 대답할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형체와 작위가 있어 동정(動靜)이 있는 것은 기(氣)이고, 형체도 작위도 없으나 동정에 있는 것은 이(理)입니다.

이(理)에 동정(動靜)이 있기 때문에 기(氣)에 동정이 있습니다. 만약 이에 동정이 없다면 어떻게 기에 스스로 동정이 있겠습니까?



< 보 기 >

- ㄱ. 사단은 칠정의 선(善)한 측면을 일컫는 것인가?  
 ㄴ.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가?  
 ㄷ.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(氣)가 발(發)한 것인가?  
 ㄹ. 심(心)은 사단과 칠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가?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  
 ④ ㄱ,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10. 밑줄 친 ㉠~㉣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○○신문
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### 칼럼

‘보이지 않는 손’을 강조한 ㉠ 고전적 자본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㉡ 수정 자본주의로 전환되었다. 이후 1970년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. 그런데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 체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 ... (후략)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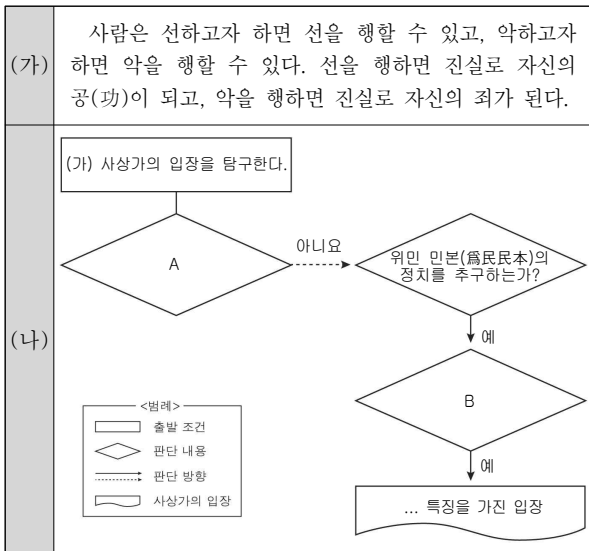
- ① ㉠은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추구한다.  
 ② ㉡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한다.  
 ③ ㉢은 국가 간 자유 무역의 확대를 주장한다.  
 ④ ㉠과 ㉡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지한다.  
 ⑤ ㉢과 달리 ㉡은 사회 보장 정책의 확대를 주장한다.

11. 밑줄 친 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선배 유학자들은 의리(義理)와 심성(心性)을 둘로 나누어 공부했기 때문에 도(道)를 두 갈래로 보았다. 그들은 성인(聖人)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참모습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본성 함양을 위한 수양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다. 그러나 심(心)이 곧 이(理)이며, 심을 떠나 별도의 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. 따라서 나는 그들의 주장이 ‘\_\_\_\_\_ ㉠’고 생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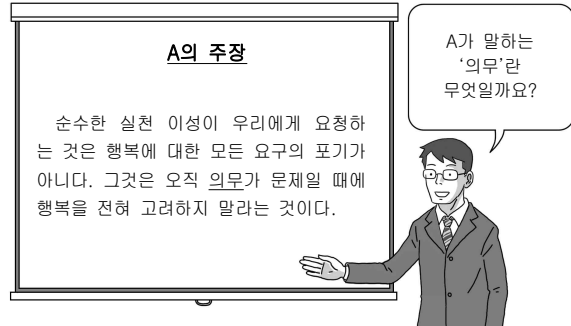
- ① 배우지 않아도 도덕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.
- ② 순수한 본래성만을 유지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.
- ③ 천리(天理)를 보존하고 인욕(人欲)을 제거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.
- ④ 구체적인 현실 문제 해결에 몰두하다 도덕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.
- ⑤ 사물의 이치[理]를 깨닫고 나서야 도덕적 행동이 가능함을 부정하고 있다.

12. (가)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,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? [3점]



- ① A: 인간과 동물의 기호(嗜好)는 차이가 있는가?
- ② A: 사덕(四德)은 경험적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가?
- ③ A: 선행을 하기 위해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가?
- ④ B: 도덕 실현은 이용 후생(利用厚生)의 선결 조건인가?
- ⑤ B: 인간과 자연은 동일한 혈기(血氣)를 가지고 있는가?

13. 그림의 A는 서양 사상가이다.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은?



- ① 감: 타고난 자연스런 경향성에 따르는 것입니다.
- ② 을: 행복에 기여하는 도덕 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.
- ③ 병: 도덕 법칙의 명령을 조건 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.
- ④ 정: 자연의 인과 법칙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.
- ⑤ 무: 구성원이 합의한 규범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입니다.

14. 감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고, 을은 현대 사상가이다. 이들 모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감: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나에게서 그렇게 존재하며, 어떤 것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당신에게서 그렇게 존재한다.  
 을: 도덕은 인간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. 이는 마치 걷는 것이 다리와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인 것과 같다. 걷는 것은 다리의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길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.

- ① 지식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.
- ②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.
- ③ 인간의 이성이 도덕 판단의 근거이다.
- ④ 불변하는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.
- ⑤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.

15. 다음을 주장한 사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-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기본적 자유가 가정사실로 인정되며,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.
- 경제적 분배로 인해 생겨나는 불평등은 가장 불운한 자에게 이득이 되고 자유 및 기회 균등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.

- ①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가 기본권의 보장보다 우선한다.
- ② 세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.
- ③ 타고난 개인적 능력을 통해 얻은 재화는 오로지 그의 몫이다.
- ④ 정의의 원칙은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칙과 다르지 않다.
- ⑤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도 침해될 수 없다.

16. 갑 사상가가 <사례> 속의 밑줄 친 ‘나’의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덕과 부덕의 차이는 그것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느낌을 통해서만 확정할 수 있다. 그러므로 도덕성은 판단된다고 보다는 느껴진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.

<사 례>

나는 추운 어느 날 새벽, 역 근처에서 얇은 옷만 걸친 채 추위에 떨면서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다. 나는 마음이 아파 목도리를 벗어서 그 사람 목에 둘러 주었다.

- ①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법칙을 따랐기 때문이다.  
 ② 동정심을 발휘하라는 이성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다.  
 ③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의 계율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다.  
 ④ 시인(是認)의 정서를 일으키고 쾌감을 주었기 때문이다.  
 ⑤ 정념(情念)이 아닌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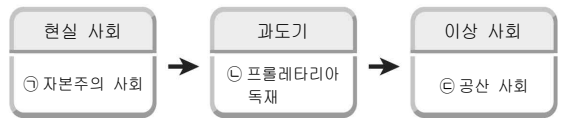
17. 다음은 고대 동양 사상가의 주장이다. 밑줄 친 ㉠, ㉡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? [3점]

금지가 많으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, 문명의 이기(利器)가 많으면 국가는 더욱 혼란해지고, 법령의 조목이 많아지면 도적이 많아진다. 따라서 통치자가 아무 일도 꾸미지 않으면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지고, 통치자가 ㉠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고, 통치자가 ㉡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진다.

	㉠	㉡
①	도덕 규범을 중시하면	겸허(謙虛)해지면
②	일을 도모하지 않으면	욕심이 없으면
③	분별적 지혜를 버리면	제도를 확립하면
④	무위(無爲)로 다스리면	예(禮)로써 분별하면
⑤	문명의 발달을 추구하면	자연의 흐름을 따르면

18. 밑줄 친 ‘나’는 사회 사상가이다. ㉠~㉣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나는 모든 역사가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본다. 현실 사회로부터 이상 사회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.



- ① ㉠: 노동자의 계급 의식이 점진적으로 약화된다.  
 ② ㉡: 자본가 계급이 모든 권력 기구를 장악한다.  
 ③ ㉢: 계급이 소멸되고 1인 지배 체제가 확립된다.  
 ④ ㉣: 사유 재산이 없고 경제적 평등이 실현된다.  
 ⑤ ㉣: 능력과 업적에 따른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진다.

19. 갑, 을, 병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. 각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, 근본이 서야 도(道)가 생겨난다. 효(孝)와 제(悌)는 인(仁)의 근본이다.  
 을: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의(義) 또한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,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.  
 병: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근원은 서로 미워하고 해치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를 아우르기[兼] 때문일까, 차별하기[別] 때문일까? 차별하기 때문이다.

	~이	~에게	비판 내용
①	갑	을	인의(仁義)가 타고난 본성임을 부정한다.
②	갑	병	인위(人爲)가 사회 혼란의 원인임을 모른다.
③	을	갑	자연스런 친애(親愛)의 감정을 무시한다.
④	을	병	예(禮)가 백성의 이익에 해가 됨을 간과한다.
⑤	병	을	이로움[利]이 곧 의로움[義]임을 경시한다.

20. 다음은 고대 동양 사상가의 주장이다. ㉠에 대한 이 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?

○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㉠ 을/를 본받고 ㉠ 은/는 스스로 그러함[自然]을 본받는다.  
 ○ ㉠ 은/는 하나[一]를 낳고 하나는 둘[二]을 낳고 둘은 셋[三]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. 만물은 음(陰)을 등에 업고 양(陽)을 가슴에 안는다.

- 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이다.  
 ②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우주 자연의 이치[理]이다.  
 ③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도덕 규범의 최종 근거이다.  
 ④ 인간의 오감(五感)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연 법칙이다.  
 ⑤ 인간과 만물의 근원이자 천지(天地) 운행의 기본 원리이다.

※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십시오.